

차움 안티에이징 센터 실내조명 계획

이해윤 (세종대학교 건축대학원 겸임 교수)

1 서 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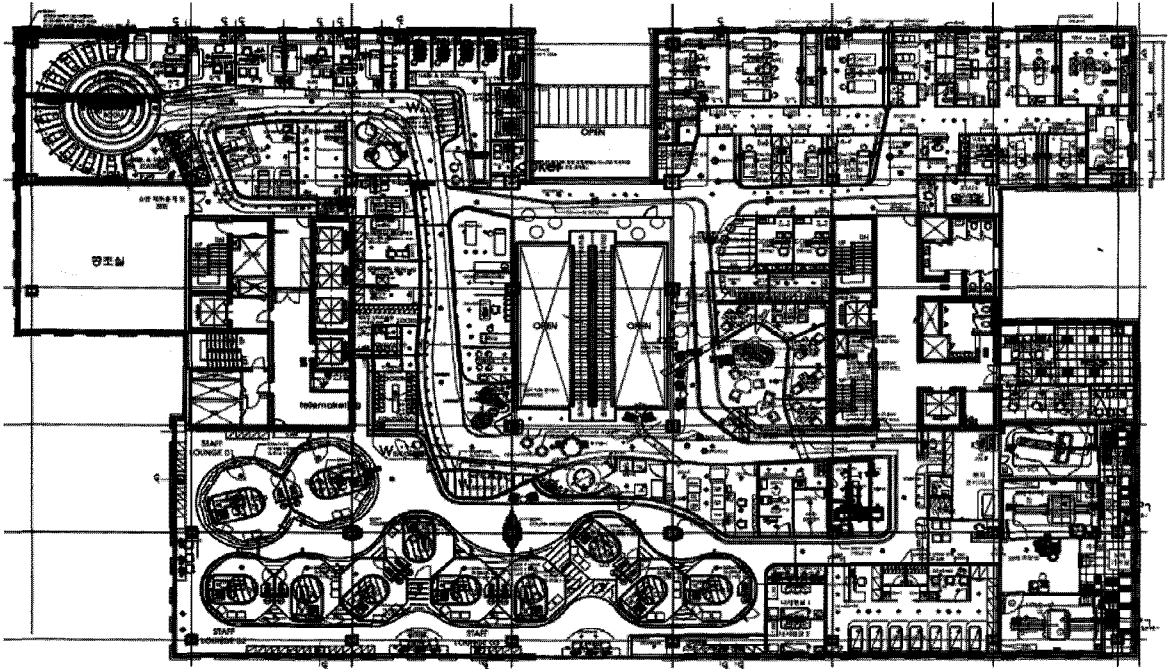
빛은 그 자체가 공간의 핵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의 많은 건축 언어들이 그 모습 그대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가장 기능적이면서도 아름다워야 하고, 공간 전체의 밸런스를 깨트리지 않으면서도 어느 순간엔 포인트가 되어야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다.

이번에 진행된 '차움 안티에이징 센터' 프로젝트에서도 빛이 이러한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인테리어 설계와 동시에 조명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소수의 멤버십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엄 의료시설'이라는 특징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퀄리티의 기능적인 조명환경과, 차별화된 인테리어 디자인에 어울리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이 함께 요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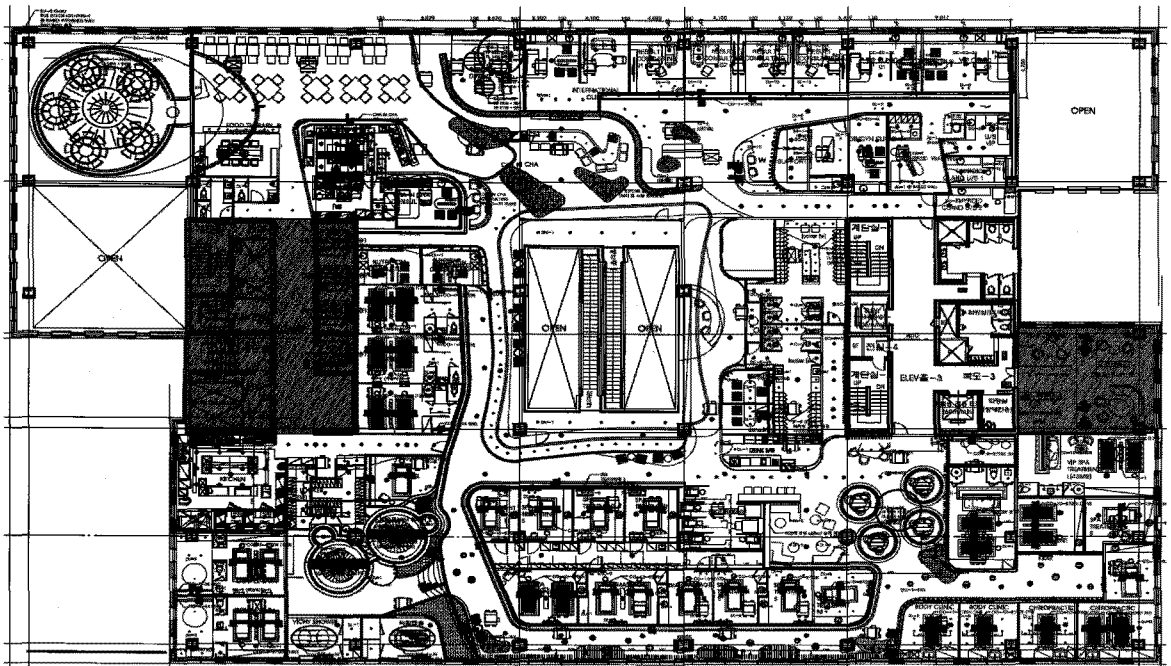
이를 위해 조명계획 단계에서 차움의 내부 공간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 지는 유선형의 면과 선, 층층의 레이어가 겹쳐진 패턴 및 우드 마감재 등이 최대한 잘 살아날 수 있도록 Warm Tone의 간접조명 및 바리솔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 결과 의료시설로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차움 내부에 개방감 및 확장감을 부여할 수 있었고, 유선형의 건축언어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다. 또 동선에 따라 이동하며 시선이 머물게 되는 지점에는 독특한 펜던트 및 Light Pole을 배치하여 Focal Point가 되게 하였고, 진료, 헬스케어, 테라피, 스파 등의 다양한 기능에서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홀 및 로비를 제외한 전체 공간에 디밍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2. 도면자료

2F



3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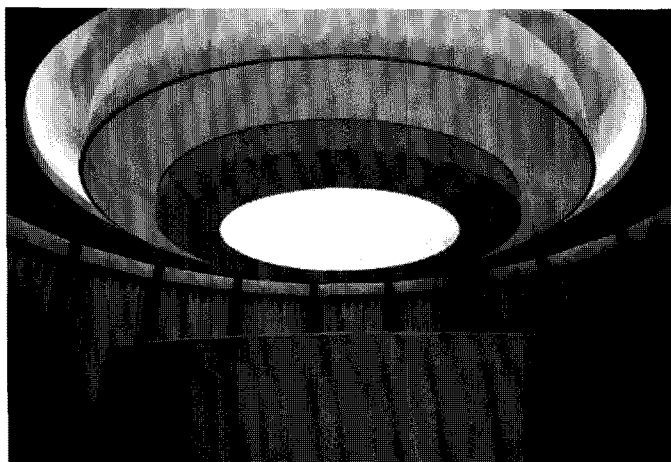
3. 완공 후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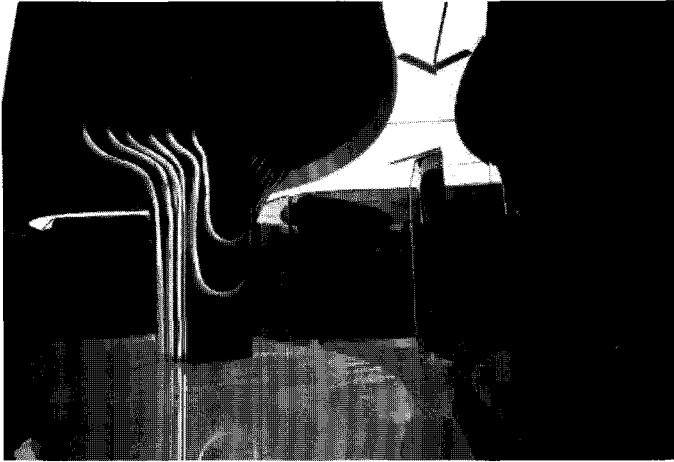
비정형적인 공간에 맞추어 링 부분이 밝게 빛나는 Downlight을 Random하게 배치한 접견존



유선형의 내부공간이 자연스럽게 연출된 복도와 Oversize 펜던트 및 light pole을 배치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한 Waiting Area



원형 천장을 활용하여 Desk 상부 바리솔 마감 공간내부에 Color Change LED를 설치,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기가 아닌, 보다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도록 계획한 Injection Room



층 내에 독립적인 형태의 공간으로 구성된 Cell Zone, 내·외부에 바리솔을 활용하여 천장을 비롯한 공간 형태를 강조하고 보다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계획 LED Backlight을 활용하여 겹겹의 레이어를 가지는 독특한 형태의 기둥을 보다 아름답게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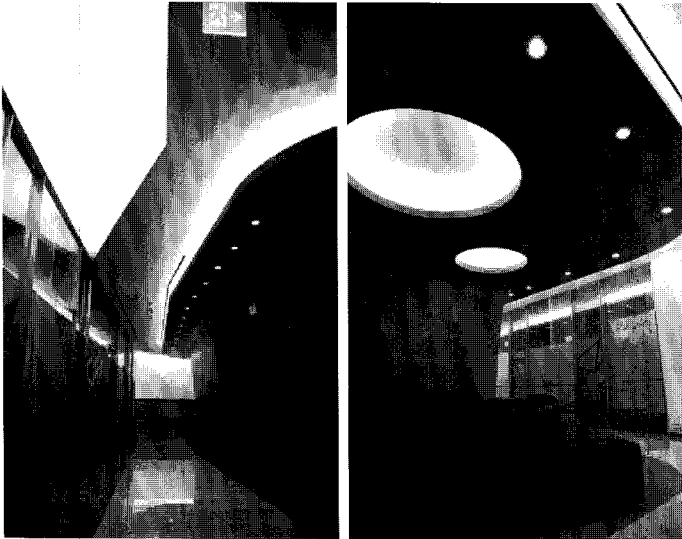
클라이언트가 직접 제안한 Chrome 갓 형태의 기구를 펜던트로 Modify하여 각 테이블 상부 및 동선에 배치, 독특하고 활기 있는 분위기를 연출한 레스토랑



보는 방향에 따라 표면에 다른 패턴이 나타나는 Unique한 Downlight을 활용하여 진입부를 강조하고, 간접조명으로 흐르는 듯한 동선을 자연스럽게 부각시킨 터키식 HAMMAM Bath



라운지에 위치하고 있는 개별 접견존, 커튼으로 이루어진 큐비클 중심의 바리솔 마감 내부에 조명을 설치하여 공간을 채움과 동시에 커튼 바깥으로 은은한 빛이 새어나가도록 계획



간접조명과 바리솔 마감재를 활용한 Hall 및 대기공간

◇ 저 자 소개 ◇



이해윤(李海允)

1963년 4월 26일생. 서울서립대학교 건축학과, Parsons school of Design, Architectural Lighting Design(석사). Brandston Partnership Inc.(Lighting Design Company in New York City). Mavericks Lighting Design 소장. 건국대학교 실내 디자인학과, 디자인 대학원 조명 계획강의. 한성대학교 겸임교수(실내디자인전공). (현재) 세종대학교 건축 대학원 겸임 교수. 서울시 디자인 심의위원.